

전혜린의 일기에 나타난 ‘모성’이라는 문제

이행미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목차

- 1 여성의 삶과 전혜린의 일기 쓰기
- 2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감정: 불안, 공포, 혐오
- 3 규범적 모성성의 균열과 우정으로 확장되는 모성
- 4 결론을 대신하여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6A3A03063902)

이 논문은 2023년 9월 17일 제17회 소영 박화성 문학페스티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통해 도움을 주신 임진하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이 글은 전혜린의 일기를 중심으로 모성에 대한 그의 사유를 규명하고자 했다. 미발표 일기와 『가정생활』에 연재된 ‘육아일기’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전혜린의 사유를 보다 세밀하게 조명하고, 일기 형식이 공적 차원의 글쓰기로서 얻게 되는 의미를 해명하고자 했다.

전혜린의 일기에는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감정이 복잡하게 서술되어 있다. 불안, 공포, 혐오를 느끼면서 어머니 되기를 거부하는 모습과 함께, 행복과 경이로움, 모성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공존한다. 전혜린의 이러한 사유는 경험 속에서 솟아난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감정들, 결론을 내리지 않은 균일하지 않은 단상들을 통해 드러난다. 이러한 서술은 개인적 체험을 바탕에 둔 일기라는 형식을 통해 표현된다. 내밀한 이야기를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일기라는 형식을 통해 모성에 대한 전혜린의 사유는 통일되지 않은 형태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구체적인 경험의 서술을 통해 다른 여성들과의 감정과 경험의 공통지대를 찾고, 당대 지배적인 모성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모성을 개념적으로 재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모성 자체를 규범화하지 않고 개별적 차원에서 사고하도록 유도한다. 일기라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형식을 통해 모성의 의미를 불확정적이고 유동적인 상태로 남겨둔다. 이와 같은 사유는 1960년대 모성 담론을 비판하고 전복한다. 전혜린의 ‘육아일기’는 모성에 대한 그의 성찰을 드러내는 동시에, 일기라는 문학적 형식의 의미를 파고 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문학 세계를 살펴볼 때 중요한 텍스트이다.

국문핵심어: 전혜린, 일기, 모성, 임신, 출산, 육아, 돌봄, 젠더, 혐오

1 여성의 삶과 전혜린의 일기 쓰기

1959년 1월 22일의 일기에서 전혜린은 일기장을 ‘친구’라 부르면서, 자신의 내적 심경을 온전히 토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명명한다.¹ 사후 발간된 유고집에서 일기는 양적으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전혜린의 내면세계를 이해하는 중

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전해린의 평전을 쓴 이덕희는 이 내밀한 일기가 사후에 공개되어 세계와 불화하는 고독한 주체라는 전해린의 참모습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² 전해린에게 ‘일기 쓰기’라는 행위가 상당한 의미를 띠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하지만 전해린이 쓴 일기의 내용이 본질적인 자기로 살 고자 하는 갈망이라는 의미로만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전해린의 일기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은 고독과 권태로 점철된 그의 내면세계이다. 그의 이름에 뒤따르는 수식어인 비범함, 예외성, 광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일기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평범한 것”,³ “모든 유동하지 않는 것, 정지한 것”과 “저열한 충동으로만 살고, 거기에도 만족하지 않는 여자”,⁴ “목적이 없고 고상한 자각이 없는 모든 것”⁵을 증오한다는 추상성이 짙은 진술은 전해린의 의식 세계의 전부로 느껴질 만큼 강렬하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는 내용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독일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만삭의 몸으로 번역 작업을 쉬지 않고 하는 모습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삶의 문제도 여러 차례 언급된다. 그의 일기에서 확인되는 수많은 다짐과 이상은 그의 인생관이나 기질을 이해하게 하는 지표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이상과 반대되는 현실 속에서 자기를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을 떠올리게 한다. 그렇다면, 전해린의 일기는 그가 추구했던 삶의 목표를 확인하기 위한 접근만으로는 온전히 규명하기 어렵다.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분열과 모순으로 점철된 사유의 흔적과 그것을 발생하게 하는 현실 문제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런데 전해린에게 일기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통로일 뿐 아니라 새로운 형식 탐구의 매개였다. 그는 루이제 린저를 비롯하여 최근 등장한 독일 소설

-
- 1 1959년 22일의 일기(전해린,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전집 2권), 청산문고, 1968, 96쪽). 이 글에서 다루는 전해린의 일기는 『미래완료의 시간 속에』(전해린 기념출판위원회 편, 광명출판사, 1966)와 청산문고판 전집 제2권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를 참고하였다. 두 책에 실린 일기는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 내용을 비교하며 인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 2 이덕희, 『전해린』, 나비꿈, 2012, 17-30쪽.
 - 3 1959년 1월 7일의 일기(전해린,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 앞의 책, 62쪽).
 - 4 1959년 1월 15일의 일기(위의 책, 78쪽).
 - 5 1959년 1월 2일의 일기(위의 책, 87쪽).

을 예로 들면서, “내용의 일반적인 몰락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내용으로써 체험해야 하며 이 체험으로부터 새로운 형식을 구성”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형식이자 “중국적인 해결은 못되나 작가에게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테마를 아무 구속 없이 파고들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형식”으로 일기를 언급한다.⁶ 이는 그가 바랐지만 결국 발표하지 못했던 소설 창작을 고민할 때 가장 가깝게 생각했던 형식으로 일기를 떠올렸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 그렇다면 전혜린이 쓴 일기 또한 개인의 삶의 기록이자 내밀한 의식 세계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이해해선 안 된다. 자기 삶을 이야기함으로써 다양한 공적 차원 문제를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장르적 성격을 염두에 두고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⁷

한편, 일기 쓰기는 여성의 정체성과 욕망을 인식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 기록하는 행위로 여겨져 왔다.⁸ 일기는 규칙과 일관성이 결여된 양식으로, 일관되지 않고 모순적인 자아의 면모를 보여주거나 얽히고설켜 있는 욕망의 여러 측면을 특정한 방향으로 해결하거나 종합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준다. 무질서하고 감정적인 사유를 내뱉는 과정은 글쓰기 주체에게 치유의 시간이 된다.⁹ 일기는 종종 단순한 사실 기록에 불과하다는 인식 아래 창작적인 세계를 구현하지 못하는 변두리 장르로 여겨지며, 이러한 관점에서 일기 쓰기는 여성의 수동성과 감상

6 전혜린은 자신이 번역한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 가운데』를 예로 들면서, 보고, 편지, 회화, 일기, 스케치, 회상, (인물의) 창작물이 하나의 소설 속에서 얽히고서 새로운 형식을 낳았다고 평가한다. 전혜린, 「체험과 사색의 형식」, 『사상계』 제8권 제10호, 1960.10, 302쪽.

7 이러한 실험은 전혜린이 발표하지 않은 일기 속에도 파편적으로 나타난다. 그의 일기는 일상의 사건, 감정이나 생각을 기록하는 일반적인 형태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성격을 띤다. 일기 안에 편지나 잡지에 수록할 원고를 삽입하고, 시를 쓰거나 소설 구상의 내용을 적어놓기도 한다. 독서 노트처럼 활용되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 놓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물론 일기라는 장르의 유연함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전혜린에게 일기 쓰기라는 행위가 내면 고백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

8 말린 쉬위, 김창호 역, 『일기 여행』, 산지니, 2019, 15-21쪽. 말린 쉬위는 서구의 많은 여성 작가와 예술가들이 일기를 썼다고 말한다. 한편, 일본문학에서 여성이 주체가 된 일기문학은 여성의 삶과 존재를 탐구하는 양식으로 정립되었다. 이미숙, 「젠더와 ‘일기문학’이라는 양식-10세기 후반 일본의 『가게로 일기(蜻蛉日記)』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2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43-72쪽.

9 말린 쉬위, 위의 책, 155-197쪽.

성을 반영하는 장르로 폄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결정성은 오히려 유동성과 개방성을 열어주는 가능성으로 나타난다.¹⁰ 앞서 언급한 전혜린의 일기에 대한 관점은 이 후자의 관점에 더 가깝다. 특정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문화적 공간 속에서 제기된 다양한 쟁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장르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혜린의 삶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현실과 떼려야 뗄 수 없다. 따라서 그의 일기는 여성의 삶과 정체성을 사적, 공적으로 횡단하며 기술한 글로서 그 의미를 더 적극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할 만한 텍스트는 전혜린의 ‘육아일기’이다. ‘육아일기’로 묶여 있는 일련의 글들은 월간 『가정생활』에 1963년 1~6월 동안 총 5회 연재 발표된 글이라는 점에서 사후 유고집에 실린 다른 일기들과는 차이가 존재한다.¹¹ 연속된 주제 아래 지면에 발표한 글이라는 점에서 전혜린이 ‘일기’라는 양식을 통해 고민했던 지점들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텍스트이다. 이

10 이송이, 「다중성, 혼종성, 여성성-니콜 브로사르 Nicole Brossard의 『일기 Journal intime ou Voilà donc un manuscrit』에 나타난 여성적 글쓰기」, 『프랑스어권 문화예술연구』 제 78호,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21, 142-171쪽.

11 『가정생활』에 연재된 5회분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참혹한 아픔의 산고-정화를 낳던 날-」(1963.1), 「바랬던 새로운 사랑」(1963.2), 「짜트기 시작한 예쁜 성격」(1963.3), 「중달새와 같은 그」(1963.4), 「행복하게 사는 소망」(1963.6). 전혜린이 발표한 이후에도 ‘육아일기’ 코너는 지속되어, 1963년 12월부터 조현례의 ‘육아일기’가 연재되기도 한다. 한편, ‘육아일기’는 『미래완료의 시간 속에』에서는 4장 ‘제2의 지혜’라는 이름 아래 수록된다. 소재목도 연재본과 동일하게 사용되었고 내용도 거의 차이가 없으나, 연도에 따라 소재목에 포함된 내용을 재배치하는 등의 변형이 이루어진다. 연재본에는 X월 X일로 표기되어 있는데, 내용상 추정 가능한 날의 정보는 밝혀두고 있다(예. 3월 X일). 청산문고에서 발간된 전집에서는 1권(「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에 수록되었다. 지면에 발표되지 않은 일기는 2권(「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에 수록되는데, 3월 13일의 일기(13일 저녁 병원에 입원함)까지만 실리고, 1961년의 일기로 넘어간다. 이때 편집자는 주를 달아, 출산 육아에 관한 일기는 1권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재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미래완료의 시간 속에』에서는 3월 13일부터 4월 7일까지의 일기가 수록되어 있다. 전혜린의 일기는 ‘육아일기’를 제외하고는 유고 수필집에 수록된 내용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단행본에 실린 내용이 그의 일기의 전부인지, 그리고 1959년 4월 7일 이후의 일기가 존재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글을 온당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체험의 기록일 뿐 아니라 잡지에 발표하여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긴 글이라는 사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육아일기’와 유고로 남긴 일기와의 비교를 통해 전혜린의 내면세계를 좀 더 풍부하게 조명하는 동시에, 양자에서 발견되는 차이를 통해 잡지에 발표된 공적 차원의 글로서 ‘육아일기’가 지닌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 전혜린의 ‘육아일기’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승인된 여성의 삶을 대변하는 모성적 가치를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작가의 내밀한 목소리를 살피보게 하는 자료로 다루어졌다. 모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모습이 일부분 보이지만, 대체로 보통 여성으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남성적 가치를 좇는 모습을 강조한다.¹² 물론 전혜린은 규범화된 아내와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 일을 여성의 평범한 삶에 안주하는 것으로 비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해석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전혜린의 모성에 대한 이해에는 부정과 거부라는 도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지점들이 존재한다. 일기에는 그가 주로 영향 받았다고 이야기되는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드문 반면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보다 의미 있게 적혀 있다.¹³ 전혜린에게 모성애는 딸로서의 경험과 어머니가 되는 경험이 결합하면서 모순적이고 중층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¹⁴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한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도 근본적인 문제였고, 여성의 사회적 삶을 질문할 때도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했던 문제였다. 이러한 생각은 당대 사회에서 전혜린에게 요구되었던 제도로서의 모성의 가치와는 다른, 직접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모성의 의미를 주

12 김륜옥, 「잉에보르크 바흐만과 전혜린-1950년 전후 독일 및 한국 여성지식인의 삶과 문학」, 『혜세연구』 제20호, 한국혜세학회, 2008, 318-321쪽; 장순란, 「한국 최초의 여성 독문학자 전혜린의 삶과 글쓰기에 대한 조명」, 『독일어문학』 제11권 제2호, 한국독일어학회, 2003, 163-166쪽. 선행연구에서 ‘육아일기’를 공적 지면에 발표된 글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단행본에 실린 다른 일기와 마찬가지로 전혜린의 내면세계를 보여주는 자료로 다루어진다.

13 어머니와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어머니를 보다 가치 있는 존재라고 적기도 한다. 1959년 3월 11일의 일기(전혜린, 『미래완료의 시간 속에』, 앞의 책, 139-140쪽).

14 모성애의 결핍으로부터 생겨난 모성애에 대한 무의식적 동경이 자신의 내면세계를 채우고 있다고 말하면서, “나의 엄마보다도 더 주의 깊고 자애심 많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1959년 1월 9일의 일기(위의 책, 67-68쪽).

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을 상기시킨다.¹⁵

이렇게 볼 때, 전혜린의 ‘육아일기’는 여러모로 흥미로운 텍스트이다. 선행 연구에서 전혜린의 글쓰기는 한국의 가부장제 속에 구축된 젠더정체성과 그것만을 승인하는 한국문단과 불화하는 실존적 주체를 추구했던 행위로 이해되었다.¹⁶ 그렇다면, ‘육아일기’는 일기라는 형식을 통해 당대 한국문단의 주류 양식에 대한 도전을 담고 있으며,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가 구축한 모성에 대한 복합적 인식을 보여주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전혜린의 젠더의식을 해명하는 선행 연구와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특히 그간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혜린의 모성에 대한 사유를 검토하는 동시에 전혜린에게 일기라는 형식이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감정: 불안, 공포, 혐오

‘육아일기’의 첫 연재를 시작하며, 전혜린은 “이 일기는 나와 정화 사이의 밀어(密語) 또는 나의 정화에 대한 사랑의 고백서이고 감사의 글”이라는 의미 말고는 글을 쓰는 다른 의도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연재된 글에서 양적, 질적 차원에

15 김윤식은 전혜린론을 쓰면서 남은 문제들을 몇 가지 부기하는데, 그중 하나로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실존”을 언급하고 있다. 김윤식, 「침묵하기 위해 말해진 언어」, 『한국근대작가론고』, 일지사, 1974, 405쪽.

16 김양선, 「1950년대 세계여행기와 소설에 나타난 로컬의 심상지리-전후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2호, 한국근대문학회, 2010, 218-220쪽; 서은주, 「경계 밖의 문학인-‘전혜린’이라는 텍스트」, 『여성문학연구』 제1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33-56쪽; 이행미, 「전혜린의 젠더의식과 실천적 글쓰기」, 『여성문학연구』 제4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118-160쪽; 장순란, 앞의 글. 특히 이 글은 장순란과 이행미의 논의에 나타난 문제의식과 연결된다. 장순란은 전혜린이 모성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가부장제를 통해 규정된 모성 개념을 두려워하고 거부했다고 평가한다(164쪽). 여기서 나아가 이 글은 전혜린이 인정한 모성의 가치의 의미, 제도로서의 모성 개념을 비판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행미는 전혜린의 실존을 강조하는 삶의 태도가 현실 사회의 규범적 여성성과의 투쟁 속에서 획득한다고 지적한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육아일기’는 1960년대 모성담론과의 연관 속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문제의식을 견지하고 있다.

서 중점적으로 논해지는 것은 딸의 유년기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모성을 둘러싼 전혜린의 생각과 견해이다. 딸의 식사량을 기록하거나 말과 행동을 관찰하는 등의 체험을 기술하는 대목이 있긴 하지만, 작가의 사유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정 일시를 언급하지 않고, ‘X월 X일’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구체적인 날짜를 생략함으로써 사건을 보편적으로 해석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육아일기’는 전혜린의 출산과 육아 경험이라는 개인의 기록을 넘어서, 공적 지면에 발표하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이해되어야 한다.

‘육아일기’ 1회는 출산 과정의 고통을 상세히 서술하며 시작한다. 과거에 쓴 일기를 기반으로 하였지만, ‘육아’를 주제로 한 기획에서 출산 경험으로 글을 시작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된 행위로 보인다.¹⁷ 출산 후의 기쁨과 경이로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더 강조되는 것은 진통과 분만 과정의 여러 절차와 의료적 개입, 그 과정에서 겪은 강도 높은 고통이다. 게다가 흥미롭게도 연재된 내용에는 3월 13일에 쓴 일기에는 없던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출산 과정의 고통을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해 스페인 고문 등과 비교하거나 죽음과 밀접한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의미화하는 내용을 더하고 있다.¹⁸ 이는 여성의

17 전혜린 다음으로 ‘육아일기’를 연재한 조현례의 글과 비교할 때도 이 글의 성격은 더욱 두드러진다. 조현례의 초점은 자라나는 아이를 관찰한 내용으로, 무거운 굴레인 동시에 고귀한 어머니의 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육아 과정에서 생겨난 우울함이 짧게 언급되기는 하지만, 대체로 일을 하고 돌아온 여성이 죄책감을 갖거나 자기비판을 하는 모습과 같이 승고한 모성의 의미를 전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18 “…… 침대와 의자와 방바닥에 앉아서까지 나는 무시무시한 고통 속에서 어린애를 끄집어 내려고 모든 힘을 다 했었다. 스페인 고문, 종교재판, 「낳을 때 여자는 아프다」(구약)…… 기타 여러 말이 생각났으나 어떤 말도 이 아픔에 비길 때는 비교가 안되는 창백한 느낌이 었다.

나는 아픔이 괴로운 나머지 죽음을 마음속에서 원하기까지 했었다. 이 아픔을 멈추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었다. 그러면서도 이 아픔은 멎지 않는 성질의 것, 필연적인 것이라고 사실을 뚜렷이 의미했다. 나는 정말과 고통과 「힘주는 일」과 싸웠다. 약하게……” 전혜린, 「육아일기: 참혹한 아픔의 산고-정화를 낳던 날-」, 『가정생활』 제3권 제1호, 1963, 1, 128-129쪽. 여기서 강조 표시는 인용자에 의한 것으로, 과거의 일기와 비교할 때 추가된 부분이다.

출산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새 생명을 낳는 축복으로만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선명히 드러낸다. 여기에는 1959년의 일기를 다시 읽고 쓰는 1963년의 전혜린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당시의 기록에서 사용된 ‘지나갔다’는 표현이 ‘지나가 버렸다’로 바뀌는 데서도 알 수 있듯,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는 전혜린의 의식이 드러난다.

전혜린에게 출산의 경험은 “아직도 이해 안 되는 이 경우”¹⁹라고 언급되듯, 출산한 지 4년이 지난 1963년의 시점에서조차 불가해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어지는 일기에서 그 의미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내용은 유고로 남겨진 일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연재 당시 새로 쓴 부분으로 판단된다.²⁰

19 “내 얘기는 1959년 3월 15일 일요일 정각 오전 네 시에 출생하다. 무게는 3. 300 그람, 키는 53센치였다. 아직도 이해 안 되는 이 경우는 내 나이 25세 때 일어난 것이다.” (전혜린, 위의 글, 129쪽). 인용문의 “아직도 이해 안 되는 이 경우”는 『미래완료의 시간 속에』는 “아직도 이해 안 되는 이 경이(驚異)”로 나타난다. 이후 연재되는 일기에는 딸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경이로움과 행복과 함께 출산과 육아가 자기를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지점들을 서술하고 있다. 전자의 내용을 강조할 경우, 그리고 유고본의 한자 병기가 편집자에 의해 추가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경우’는 ‘경이’의 오식일 수 있다. 그러나 연재된 ‘육아일기’의 이어지는 주된 내용이 출산 행위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사실을 떠올릴 때, ‘경우’는 오기가 아닐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은 ‘경이’가 아닌 ‘경우’로 이 문장을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설령 연재본의 표기가 오기이더라도, 연재된 내용이 독자들에게 읽히면서 어떠한 의미를 불러일으켰는지를 생각한다면 ‘경우’로 적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20 『미래완료의 시간 속에』에 수록된 일기 중 ‘육아일기’의 시간과 겹치는 부분은 3월 13일부터 4월 7일까지의 일기이다. 그런데 연재 1회본에서 두 일자의 일기는 『미래완료의 시간 속에』에 수록된 3월 13일, 4월 7일과 유사하다. 그리고 양 일자의 일기 사이에 3월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일자의 일기가 놓여 있다. 『미래완료의 시간 속에』에서 3월의 일기는 13일을 제외하면 19일, 22일, 23일, 28일이 실려 있다.

그런데 연재된 ‘육아일기’에서 3월 모일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그 일기는 내용상 과거의 일기를 수정하여 재수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미래완료의 시간 속에』의 일기(3월 19일, 22일, 23일, 28일)에는, 남편을 비롯한 지인들의 병문안과 축하 인사가 많은 비중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출산 후 신체의 통증의 변화, 산후 심리 상태, 아이의 성장, 퇴원 이후 양육 문제 등과 관련된 내용이 쓰여 있다. 또한, 유고로 남겨진 일기 중 임신한 상태의 고통을 기술한 부분에서도 크게 두드러지지 않은 여성의 몸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도 주의를 요한다.

형제의 장녀였던 나는 아이들의 분홍빛 뺨에 환상을 그리기에는 너무나 현실을 알고 있었고 도대체 출산이라는 행위의 타당성을 의심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이를 원하고 있지 않았었다. 나 하나만의 생존의 무게만으로도 족한 줄 알고 있었다. 또 한 개의 가능성적 존재를 이 세계 속에 내던진다는 것을 용서할 수 없는 무모나 경솔로 생각되었었다. 임신도 싫었다. 보오들레에르가 「거미의 병」이라고 부른 것처럼 일종의 병적인 추악한 상태로밖에—육체의 불쾌한 비상사태나 예외상태로밖에 그것은 나에게 느껴지지 않았었다. 구토의 삼개월 후 점차 변화가 나타나 육체의 변모와 커지는 유방을 나는 혐오했었다. 나 혼자만의 것이었던 단단하던 육체가 마치 만인의 것인 호물호물하고 부드러운 무엇으로 변신하는 듯한 소름끼치는 혐오였다. 목욕이나 샤워의 경우도 나는 눈을 똑바로 허공에 두고 절대로 내 몸을 보지 않았었다. 출산행위의 중간에서도 나는 임신을 주저하고 있었다. 또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어떤 초산부도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닐까?

또는 처음부터 아이를 태아 때부터 갖고 싶고하고 사랑하고 싶어하고 있는 여자도 많은 것일까?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공포하고 있었다. 첫째 임신이나 출산에 관해 생리적 혐오를 느꼈었고 정신적으로도 한 생명을 세계에 내 던지는데 대한 무책임감에 고민했었다. 그 이외도 때때로 배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지—개구리나 오리가 들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수꽝스런 망상에 사로 잡히기도 했었다. 물론 순간적인 것이었으나.—아뿔튼 너무나 불안했고 공포에 넘친 임신기간이었었다. 이것은 내가 외국에 있다는 사실과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하고 긴밀한 연관이 있는 공포였고 불안이었다. 조국에서 부모나 동생들 친척, 친구 또는 그냥 피부색이 같고 음식이나 습관이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임신이었다면 내 연령으로 보나 또는 3년이라는 결혼 했수로 보나 이런 불안이나 공포가 나의 임신에 수반되었을 리가 만무했으리라 생각된다. 내가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워했었던 것은 내가 과연 그 미래의 내 아이에 대해서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²¹

여기서 두드러지는 것은 임신한 자신의 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전혜린의 태도이다. 그의 일기 대부분은 정신적 차원의 불안을 드러내고, 신체와 관련해서는 건강하지 못한 몸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임신한 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다른 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런데 이 글이 실린 『가정생활』을 비롯하여 1960년대 초기 여성지는 여성의 성을 임신 출산 문제에 국한하여 다루면서 여성의 몸을 국가의 관리 대상으로 호명했다. 여성을 임신 출산 과정에서 예민한 감수성과 생리적 변화를 겪으면서 모성성이라는 종착지에 이르는 존재로 담론화했다.²² 이러한 점을 상기할 때, 전혜린의 글은 매우 흥미롭다. 그는 여성의 몸을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다루면서도, 그 신체는 부자연스럽고 이질적인 것, 심지어 공포와 혐오의 대상으로 묘사한다. 또한, 연재된 글 전체를 관통하는 결론은 모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다. 따라서 이 글은 여성의 몸을 둘러싼 억압과 저항이라는 문제 속에서 그 의미를 읽어낼 필요가 있다.

다시 인용문으로 돌아가 보자. 전혜린이 임신한 몸을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는 장면은, 임신 경험이 여성에게 가져오는 낯섦과 공포를 강렬하게 드러낸다. 목욕 중 자신의 몸을 절대로 보지 않으려는 강박적인 행동은 의지에 따라 통제되지 않는 몸에 대한 의식적인 거부 의 몸짓이다. 이는 여성의 몸을 새 생명을 낳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몸이라는 의미로 재생산에 한정해서 이해하는 관념에서 벗어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인식은 언뜻 여성의 몸을 혐오하는 부정적 시선을 내면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고통의 감정이 그 결과로 이어질 출산이라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서술과 함께 적혀 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어머니 되기를 거부하는 그의 목소리는 ‘성스러운 어머니의 고통’이 아니라 ‘한 여성의 고통’으로 나타난다. 전혜린이 집요하게 관찰하는 것은 ‘어머니가 되기 전 단계로서의 임신한 몸’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자기의 몸’인 것이다. 더하여 임신과 출산을 여성의 당연한 경험으로 여기는 통념과 이를 생명 탄생이라는 숭고한 책임으로 보는 시각, 여성의 육체적 변화를 생리적 현상으로

21 전혜린, 「육아일기: 참혹한 아픔의 산고-정화를 낳던 날-」, 앞의 글, 129쪽.

22 최경희, 「1960년대 초기 여성지와 소설에 나타난 국가주의 연구-『가정생활』, 『여성』, 『여원』과 손창섭의 『부부』에 나타난 여성의 국민화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57호, 우리문학회, 2018, 394-395쪽.

만 인식하는 관점이 일반화된 사회에서 이 글이 던져준 여파는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²³ 특히, 『가정생활』의 독자가 전국의 주부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해린의 글은 적지 않은 감정적 동요를 불러일으켰을 가능성이 크다.²⁴

‘육아일기’를 쓰는 목적이 딸을 향한 사랑의 고백임을 감안한다면, 굳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임신 기간 동안 경험한 정신적 불안과 공포, 변화하는 자신의 몸에 대한 혐오를 서술하는 이 부분은, 대부분 기혼여성들이 이 잡지의 독자를 향한 발화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전해린은 임신을 두려워하는 자신의 감정이 다른 초산부도 갖게 되는 느낌이 아닌지 묻는다. 아이를 원하고 사랑하고 싶어 하는 여자가 과연 많은지 질문하면서, 자신의 공포를 다른 여성들의 감정과 나란히 놓고 이해하고 싶은 열망을 내비친다. 전해린에게 임신과 출산은 한 개인이 겪은 불가해한 경험이자, 다른 여성들과 연결될 수 있는 공통의 감정과 번민의 계기로 인식된다. 이와 같은 생각은 임신 중에 쓴 일기에서도 발견된다. 1959년 2월 13일의 일기에서, 전해린은 아이를 낳는 일은 큰 책임감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소름 끼치는 속박이라고 표현하면서, “산욕 중 자살을 한 여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산후 자살하는 여성들의 선택을 “직접적인 동기 없이 말하자면 세계고(世界苦, Weltschmerz)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미화한다.²⁵

23 이러한 견해는 이대 대학병원산부인과 의사가 『가정생활』에 발표한 글에서도 나타나는 내용이다. 정진욱, 「주부의 의학교실: 임신과 분만과정」, 『가정생활』 제1권 제8호, 1961.8, 41쪽.

24 『가정생활』에는 독자가 보내준 글을 실는 란이 존재한다. 필자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전해린의 ‘육아일기’에 대한 감상은 수록되어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독자 반응을 살피기는 어렵다. 다만, 이 잡지를 읽는 독자들이 적지 않았으리라는 추측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 글이 당대 독자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

25 1959년 2월 13일의 일기(전해린, 『이 모든 그리움은 또다시』, 앞의 책, 119쪽). 한편, 전해린의 일기에서 임신은 다른 여성과 비교하며 자신의 허약하고 병약한 신체를 확인하는 경험으로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이 공유하는 경험의 밀도가 아니라, 신체적인 차이로만 언급된다(1959년 2월 2일의 일기, 1959년 2월 17일, 2월 22일의 일기. 위의 책, 107, 125, 131쪽). 즉, 이 진술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여성들과

그런데 인용문에서 전해린은 임신과정에서 나타났던 공포와 불안이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국에서의 거주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고 언급한다.²⁶ 그는 어머니 되기의 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에 이어 이러한 감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겨날 수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모성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유보하고 있다. 이는 전해린이 일기라는 형식을 취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자 했음에도, 공적 지면에 발화하는 데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이러한 자기검열의 흔적은 모성적 가치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오히려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현실의 강한 압력을 떠올리게 한다.

이처럼 전해린은 임신과 출산의 개인적 경험을 기술하면서 모성이 보편적이지 않고 개별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인 경험의 진술을 통해 다른 여성들과의 감정과 경험의 공통지대를 찾고자 한다. 일기는 전해린이라는 한 여성의 삶에서 출발하여, 여성 일반의 삶과 정체성을 탐구하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3 규범적 모성성의 균열과 우정으로 확장되는 모성

전해린의 ‘육아일기’에는 모성적 가치를 비판적으로 상대화하는 내용만큼이나 딸을 향한 사랑과 애정의 감정이 숨김없이 기록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전해린이 이러한 감정을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모성애와는 다른 것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 다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딸에게 품은 감정을 모성애와 구분하면서, 모성애의 본질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내가 정화에게 품은 감정도 모성애라기보다는 면밀한 호기심과 관찰의 욕과 감탄이라고 부르는 편이 낫겠다. 아니 나도 도대체 모성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것은 순수한 어떤 감정이라기보다는 대개의 경우에는

의 차이가 아니라 자기의 신체의 한계를 발견하는 시선이다.

26 미발표 일기에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도움을 주거나 출산 이후의 방문과 축하 인사가 적지 않게 적혀 있는데 반해, 연재된 글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조금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 이는 자신의 경험의 고통을 좀 더 강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임신 출산의 경험을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로만 설명하는 태도로 인한 가공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감정이나 경향의 혼합물 같이 나에게서는 보였다. 자기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여자나 자기에 도취되어 있는 여자의 자기 아이에 대한 태도는 나르씨즘이었고 불감증이나 히스테리나 욕구불만의 여인은 지배욕에 불타서 아이를 꼭 잡아 두려고 했고 체계 없는 교육으로 아이를 혼란시켰었다. 온갖 종류의 몽상(夢想), 박애심, 기만, 헌신정신, 금욕주의 등 많이 복합(Komplex)처럼 모성애 속에 박혀 있다. 정말로 자유로운 순수한 모성애의 여인들도 물론 없는 것은 아니나 엄밀히 말해서 매우 드물다.²⁷

전혜린은 모성애를 보편적이고 본능적인 감정으로 여기는 시각에 거리를 두고자 한다.²⁸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정말로 자유로운 순수한 모성애”를 찾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도 말한다. 그에 따르면,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이른바 모성애의 모습은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혼합물과 같은 양태로 발현된다. 아이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기질이나 성격, 인생관 등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²⁹ 전혜린은 모성애를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구불변의 가치가 아니라, 개인

27 전혜린, 「육아일기: 싹트기 시작한 예쁜 성격」, 『가정생활』 제3권 제3호, 1963.3, 158쪽.

28 전혜린의 글에서 모성애에 대한 인식이 일관된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육아일기’에서 “정확 속에도 모성의 본능이 벌써 숨겨져 있는 것”(위의 글, 202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미발표 일기에서도 “본능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명령”(1961년 1월 19일의 일기. 전혜린, 『이 모든 괴로움은 또다시』, 앞의 책, 198쪽)이라고 표현하는 등 모성애를 절대화하는 진술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전혜린이 경험 속에서 순간순간 드는 감정을 진술한 것이다. 이와 달리 모성애 자체에 대해 본격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전혜린의 감정보다는 ‘사유’를 살펴보게 한다. 물론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진술은 모성애에 대한 전혜린의 인식이 불철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일기’라는 형식을 통해 진술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사유와 감정이 충돌하는 모순적 지점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실험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편이 온당해 보인다.

29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도 부모의 아이에 대한 태도가 개별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잘 드러난다. “사람이 자기의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것 미지의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 견해와 연결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미지의 것이나 새로운 무엇을 전연 대수롭지 않게 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며 적응이 빠르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작은 변화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에 따라 그 존재 여부와 감정의 표현이 달라지는 하나의 상태로 보았다. 즉, 모성애는 본성이나 본질이 아니라, 예외적이고 우발적일 수 있는 개별화된 감정이라고 주장한다. 보편적 법칙으로 규범화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³⁰

이처럼 전혜린의 모성에 대한 인식은 거부와 수용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말하면서도, 아이와 부모를 동일한 존재와 연관 속에 놓는 독특한 과정으로 보면서 다른 대인관계에서 볼 수 없는 기적이고 신비라고 언급한다. 동시에 통상 이야기되는 모성애를 부정하며, 개별적인 경험과 인생관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전혜린은 여성의 경험을 제한적으로 규정짓는 조건으로서 모성이라는 제도를 비판하지만, 여성의 삶에서 개별적으로 겪게 되는 경험으로서의 모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³¹

한편, 전혜린은 본능, 이타심, 희생 등을 내포로 하는 이상적 어머니상과는 다른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질문한다. 우선, 모성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책임감만 있어서는 안 되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심미적 논리적 물질적 상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³² 모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위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전혜린은 모성과 모권을 분리하여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이의 자의식이 눈을 뜨기 전까지는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이 필요하지만, 사랑을 이유로 자녀에게 부당한 간섭을 하는 것은 옳당하지 않다고 말

반응을 보이고 장기간에 걸친 적응이 필요한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아이가 언제까지나 새로운 경이와 새로운 발전의 대상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서는 아이를 가진 일이나 아이를 관찰하는 일에 세수나 양추질하는 일과 같은 정도의 당연성과 의미 밖에는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인 것이다. 우리의 아이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이나 인생관과 평행되는 것이고 매우 개인적인 것이다. 개인에 따라 그 뉴앙스는 천차만별이며 아이는 어떤 경우에는 상실, 어떤 경우에는 풍요함을 또 어떤 경우에는 무거운 짐이나 과제를 또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 또 어떤 경우에는 환희에 넘친 호기심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전혜린, 『육아일기: 바랬던 새로운 사랑』, 『가정생활』 제3권 제2호, 1963.2, 86쪽.

30 엘리자베트 바덴테르, 심성은 역, 『만들어진 모성』, 동녘, 2009, 6-15쪽.

31 에이드리언 리치, 김인성 역,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평민사, 2018, 9-11, 45-46쪽.

32 전혜린, 『육아일기: 싹트기 시작한 예쁜 성격』, 앞의 글, 158쪽.

한다.³³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성이 자기의 생활과 자기 의의를 실증할 수 있는 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전혜린은 이를 충족할 때만이 ‘더 나은 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자기의 생이 텅 빈 것, 타인이나 물질 속에 소외(疏外)시켜진 것, 하나의 무(無)라면, 그런 여자가 아이를 단순한 존재의 상태가 아니라 논리의 상태에서 기를 수 있을 것일까? 많은 어머니는 끊임없이 아이에게 방해 받고 또 스스로 아이를 방해하면서 자기가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이 24시간을 보내고 있다. 「언제나 아이를 위해서 거기 있는 어머니」다. 그러나 과연 그 여자들은 정말로 있는(現存) 것일까? 있는 것은 그들의 공허한 희망의 미아리일 뿐이다. 결국 자기 자신이 아무런 생활도 갖고 있지 않은 어머니가 아이들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은 (그리고 환멸하게 되는 것은) 이때문인 것이다. 가장 풍부한 개인적 생활을 가진 여자만이 아이로부터 가장 적은 요구를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미 끝나버린 생을 지속하고 있는 여자가 아니라 자기를 초월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의를 찾고 실증하고 있는 여인이 가장 겸손한 어머니인 것이다. 노력과 투쟁속에서 고독과 성실한 기회속에서 참된 인간적 가치를 획득하는 여자야말로 가장 좋은 교육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자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생활에 있어서 한 역할을 담당하려는 최근의 일반적인 경향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인 것이다. 단 현재 여자가 가정 밖에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33 당대 문단에서 모성을 상대화하는 이러한 문제의식은 전혜린만의 것은 아니었다. 『가정생활』에 실린 한무숙의 산문에서도, 모성의 어리석음과 잔인성이 통렬하게 비판된다. 한무숙에 따르면, 당시 신문에는 생활고로 아이와 동반 자살하는 어머니들이 집단화될 정도로 많다고 보도되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이 모성애라는 이름 하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논하면서, 모성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 모성’이나 ‘인위적 모성’으로 전환하는 등의 인식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무숙, 「죽음보다 강한 모성의 극치」, 『가정생활』 제3권 제5호, 1963.5, 54-57쪽.

있고 전력을 다 해야 하는 직업과 어린아이의 양육을 양립시킬 수 없는 것은 아직도 너무나 사회의 설비나 그밖의 노력과 연구가 등한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안심하고, 하루에 몇시간동안 맡길 수 있는 탁아소가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은 확실히 사회의 무능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직장을 가진 어머니」가 격증할 것이며 그에 따른 어떤 선처가 있을 것이 기대된다.³⁴

전혜린은 자기의 생이 텅 빈 어머니는 아이를 단순한 존재로 양육하게 되고, 맹목적 사랑과 헌신을 다하면서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요컨대, 그는 모성을 자기 소멸의 방향에서 찾지 않고 주체적으로 발휘해 나갈 때, 자녀와 어머니의 관계는 이상적일 수 있으며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전혜린의 접근 방식은 당대 확산되었던 ‘과학적 모성’의 속성을 일정 부분 포함하면서도,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유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부터 육아와 모성 담론에는 유아와 아동의 교육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관리자로서의 어머니의 모습이 중요시 되었다.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그 방법을 육아에 적용하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역할이 요구되었다.³⁵ 전혜린은 자녀 교육을 위해 공부하는 어머니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여성의 공부는 자녀 교육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과 의의를 찾는 방향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생각은 당시 여성의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의 확산이 모성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로 이어진다.³⁶ 다시 말해,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과 여성의 사회 참여는 선후 관계에 있지 않으며, 함께 달성되어야 하는 필요충분조건 같은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탁아소 등 사회적 제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³⁷

34 전혜린, 「육아일기: 행복하게 사는 소망」, 『가정생활』 제3권 제6호, 1963.6, 93-94쪽.

35 이재경, 『가족의 이름으로-한국 근대가족과 페미니즘』, 또하나의 문화, 2003, 160-163쪽.

36 『가정생활』에도 여러 분야에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의 목소리가 좌담 등의 형태로 실린다.

37 가사노동과 육아의 부담은 여성에게 정신과 육체에 여유를 주지 못해 왜곡된 모성애로 발

이러한 주장은 돌봄의 사회화라는 문제 제기와 연결되고, 여성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모성 이데올로기를 넘어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여성의 직업 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붙잡고 있어야 하는 어머니의 자리에 대한 의미 부여는, 여성을 가정을 떠난 존재로 상상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전제는 전혜린의 육아에 대한 인식이 어머니와 딸의 관계 속에서만 이야기되고, 아버지의 돌봄 역할과 같은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게 만든다.

주지하다시피 전혜린은 여성의 비본질화가 사회와 가정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심화된다고 보았다.³⁸ 그는 사회적으로 남성에게 허용된 방랑(방황)의 자유를 삶의 본질에 가까운 것으로 보면서, 가정 내에서 반복적인 일과를 단조롭게 지속해 나가는 일상이 여성을 진정한 존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한다.³⁹ 중국에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자기의 일과 목표를 가지고 자기 초월을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가정 안에서는 자아실현과 자기 초월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제에 기반한다. 따라서 전혜린에게 가사와 육아 노동은 배우자와 분담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돌봄의 사회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돌봄의 젠더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전혜린이 모성의 의미를 반복적인 가사 및 육아노동과 구분을 지으면서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전혜린에게 ‘좋은 어머니 되기’와 ‘자기 생활의 의의 찾기’는 정신 또는 관념적 차원에서만 결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그는 반복적인 육체노동은 비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했으므로, 모성의 의미를 노동 문제와 결부하여 이야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전혜린의 글에서 육아는 어머니와 딸 사이의 정서적인 연결과 독자적 존재로서의 마주봄이 실현될 때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육아일기’의 최종회에서, 전혜린은 딸이 자신을 잊고 살아갈 때 비로소 행

현될 수 있다고 보는 논의는 다음의 글에서도 나타난다. 전혜린, 「식모와 주부의 노동」, 『여원』 제7권 제9호, 1961.9, 139-140쪽.

38 전혜린, 「여성의 약점-약점 7: 사치스럽다」, 『여원』 제6권 제10호, 1960.12, 206-208쪽.

39 전혜린, 「남자/ 그 영원한 보헤미안」, 『여상』 제2권 제6호, 1963.8, 87-89쪽

복하게 사는 소망이 달성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은 어머니의 사랑의 실천 속에서 가능하며, 그 실천은 어머니가 자신의 생의 가치를 탐구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는 “가장 자연적인 관계—한 살과 한 영혼인 관계가 이처럼 복잡한 「너와 나의 관계」로 되는 데에 출산과 육아의 또 하나의 크나큰 신비”가 있다고 말한다.⁴⁰ 전해린은 출산과 육아의 경이로움을 ‘탄생과 발견’이 아니라 ‘독립과 분리’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너와 나’라는 동등한 자아로서 나뉘어져 가는 신비로운 경험으로 의미화한다.

그런데 전해린에게 있어 이 관계는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모성에 일반적으로 환원된다고 보기 어렵다. 전해린은 출산 직후 아이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표현하면서, 그 순간 공포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자신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감정은 ‘여자 아이’라는 점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고 말한다.⁴¹ 전해린이 딸을 자신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자신이 낳은 아이여서가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이다. 그는 여러 글을 통해 자신의 분신과 같은 여성들을 향한 애정을 반복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일기에서 이는 ‘자매혼(Schwester-seele)’이라는 표현을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⁴² ‘육아일기’에서는 아이가 자라면 모녀 관계가 ‘우정’으로 바뀐다고 적고 있기도 하다.⁴³ 이처럼 전해린과 딸의 관계는 모성애라는 감정으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 ‘자매애(혼)’으로 이어지는 감정이다. 요컨대, 전해린에게 육아는 어머니의 자유와 딸의 자유가 공

40 전해린, 「육아일기: 행복하게 사는 소망」, 『가정생활』 제3권 제6호, 1963.6, 95쪽.

41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를 좋아하고 있지 않았던 편인 나는 내 아이에 대해서라고 내 예외적인 태도를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게 되리라는 관측을 불허했었다. 그러나 출산행위가 끝난 직후 내 아이와 첫 대면했을 때 이 공포는 살아지고 말았다. 「첫눈에 반했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 같다. 주먹보다도 작고 완전히 동그란 머리와 긴 머리카락, 그리고 벌써부터 생 그 자체에 대한 기갈을 느끼는 듯 손을 빨고 있던 모습, 귀여운 울음소리… 아몽든 한눈에 마음에 들어버린 정화였다. 너무나 작았고 너무나 생기에 넘쳐 있었다. 그러면서도 전적으로 나에게 의존해 있었고 약했다. 여자 아이라는데서 더욱 친밀감과 분심감이 강렬하게 느껴지고 아무런 내적 갈등없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사랑을 느껴버린 것 같다. 임신 중에도 내가 마음속 깊이 소원했던 것은 여자 아이였으니까—” 전해린, 「육아일기: 참혹한 아픔의 산고-정화를 낳던 날-」, 앞의 글, 129쪽.

42 1961년 1월 10일의 일기. 전해린,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 앞의 책, 189쪽.

43 전해린, 「씩트기 시작한 예쁜 성격」, 앞의 글, 159쪽.

존하는 관계를 느끼게 하는 시간이다. 동시에 이는 여성들과의 공통성과 연대로 확장될 수 있는 경험이다. 그의 이러한 사유는 일기라는 형식을 통해 개별화된 특수한 경험과 여성의 보편적인 문제 사이를 오가며 전개된다.

4 결론을 대신하여

전혜린은 임신과 출산을 죽음과 맞닿은 행위로 이해한다.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처한 여성들의 모습을 그린다. 이를 통해 아이를 낳는 일을 숭고한 모성의 신비와 여성의 특권 및 의무로 이해하는 일반적인 관념을 넘어선다. 무의미한 날, 생(生)보다는 사(死)에 가까운 날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혜린은 여성이 할 수 있는 모든 일 중 출산이 “최량의 것”이자 남성의 모든 일보다 근원적인 질서에 소속되는 것인지 묻는다.⁴⁴ 여성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성의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탐구하고자 한다. 전혜린의 사유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1960년대 모성 담론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된다.

전혜린에게 모성은 다층적 차원에서 이해된 것으로 보인다. 그의 논의는 한편으로 모성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일으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성의 의미를 강화하고 여성의 특수성과 가정 내 여성의 삶의 의미를 강조한다. ‘모성의 사회화’와 ‘모성의 자유’라는 문제가 결합된 논의는 한국 사회에서 모성 담론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각각의 쟁점들을 앞서 복합적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⁴⁵ 전혜린은 모성을 때로는 거부하고 때로는 옹호한다. 그는 모성의 안과 밖을 넘나들면서 다른 가치와 의미들을 끼워 넣는다. 그 사유는 균일하거나 철저하지 않다. 하지만 경험적이고 우발적이다. 전혜린의 일기는 모성애를 재정의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일기라는 열려 있는 형식을 통해 모성애에 새로운 규범

44 전혜린, 「육아일기: 바랬던 새로운 사랑」, 앞의 글, 87쪽.

45 이정옥에 따르면, 한국에서 ‘모성의 사회화’라는 차원이 쟁점화된 것은 1990년대이다(이정옥, 『페미니즘과 모성: 거부와 찬양의 변증법』, 『모성의 담론과 현실』, 심영희·정진성·윤정로 편, 나남출판, 1999, 61쪽). 문소정은 한국에서 ‘모성 자유(선택)론’은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문소정, 「한국 여성운동과 모성담론의 정치학」, 위의 책, 83쪽).

을 덧씌우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혜린은 일기라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형식을 통해 모성의 의미를 불확정적이고 유동적인 상태로 남겨둔다.

‘육아일기’ 연재가 끝나고 몇 달 뒤, 전혜린은 「출산에서 배운 것」이라는 글을 발표한다. 이 글에서 전혜린은 출산과 육아의 경험이 생활의 규율화를 요청했고, 그 결과 이전보다는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얻었다고 말한다.⁴⁶ 여러 글을 통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일에서 자신의 실존을 발견할 수 없다는 생각을 피력했던 그의 모습을 떠올릴 때, 규율과 안정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발언은 매우 낮설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던 ‘육아일기’에서의 다층적이고 애매한 태도를 고려한다면, 다소 이질적인 이러한 진술도 전혜린이 경험한 현실의 일부임을 부정하긴 어렵다. 모성을 부정하면서도 육아의 기쁨을 경험하고, 출산의 공포를 이야기하면서도 경이로움을 느끼는, 인식의 한 극단과 다른 한 극단을 오가는 전혜린의 의식은 통일된 관점과 정리된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여성의 현실을 보여준다.

한편, 1964년 1월 『가정생활』의 기획 중 ‘가정에서의 불만’을 적는 코너에서는, “사랑도 결혼도 출산도 직업도 결국 한 여인의 내부와 외부를 빈틈없이 완전히 채우는 무릇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한다.⁴⁷ 사랑, 결혼, 출산이 여성의 가정 내에서의 역할을 이야기한다면, 직업은 여성의 사회적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전혜린은 반복되는 일과가 주는 허무, 영원한 반복 속에서 느끼게 되는 공허와 절망이 삶의 본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여성의 사회적 삶 역시 반복과 지

46 전혜린, 「출산에서 배운 것」(柳柳부리틴, 1963.9),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청산문고, 1968, 143-144쪽. 이 글에서 전혜린은 신경이 자극되어 잠이 오지 않을 때 ‘스리나’를 먹을 뿐, 다른 약은 사용하지 않으니 꽤 건강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전혜린의 일기를 살펴보면, ‘스리나’라는 제목이 시가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약의 복용이 전혜린만의 특이한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정생활』은 유한양행이 발행한 잡지인 만큼, 약에 대한 광고가 굉장히 많고, 어머니를 집안의 의사로 표상하면서 상비약 목록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때 ‘스리나’는 근심 걱정에는 1정, 잠이 안 올 때는 2정을 먹는 것으로 소개된다. 이러한 광고는 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게 만든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전혜린을 비롯한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약을 복용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성의 질병과 의학담론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47 전혜린, 「기다림에 지친 일생-가정에서의 불만-」, 『가정생활』 제4권 제1호, 1964.1, 49쪽.

속성에 점철된다면, 이는 실존적 삶을 방해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논의는 전해린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실존의 문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비슷한 시기 전해린이 쓴 다른 글과 나란히 놓고 볼 때도, ‘육아일기’가 보여준 의미는 좀 더 다채롭고 복합적이다. 실존을 추구했던 그 특유의 의식 세계를 바탕에 둔 여러 글들과 연속선상에 있으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당대 현실과 모성담론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빚어진 문제의식을 살펴볼게 한다. 전해린이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의식이 어머니의 삶이라는 현실과 만나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유는 일기라는 형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일기는 변덕스럽고 일관되지 않은 생각도, 다양한 욕망과 정제되지 않은 견해도 드러낼 수 있는 형식이다. 유년기의 딸로서의 체험과 어머니 되기의 경험 속에서 생겨난 여러 질문과 단상들은 일기라는 형식을 통해 좀 더 풍성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경험 속에서 솟아난 해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 무기력과 좌절, 분노와 혐오, 죄책감 등의 감정들은 모성을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에 대한 통념과 충돌하며 생겨난 것이다. ‘육아일기’라는 글의 주제로만 좁혀 이야기하자면, 자기만의 특색을 지닌 어머니 되기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만나게 된 감정들이라고도 할 수 있다. 모성의 신화를 둘러싼 여성 혐오를 넘어서, ‘어머니 되기’를 경험하는 한 개인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솟아오른 한 개인의 사색은 독자들과 만날 때 더욱 커다란 질문과 고민을 낳는다. 사진과 함께 전달되는 친숙한 일상의 기록은 독자의 마음에 쉽게 다가갔을 테지만, 그 글이 가슴 속에 와 닿는 울림은 결코 작지 않다. 이러한 지점이 여성의 일기 쓰기, 그리고 그 일기를 모두가 함께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복성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볼 때, 전해린이 생각했던 일기라는 형식의 의미, 즉 개인의 체험을 매개 삼아 다양한 차원을 제약 없이 오가며 질문을 던지고 깊이 파고드는 형식에 대한 탐색은 ‘육아일기’에서 어느 정도는 시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해린의 문학 전반에서 일기라는 형식을 탐구하며 추구했던 새로운 문학의 의미에 대한 연구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전혜린, 「체험과 사색의 형식」, 『사상계』 제8권 제10호, 1960.10.
_____, 「여성의 약점-약점 7: 사치스럽다」, 『여원』 제6권 제10호, 1960.12.
_____, 「식모와 주부의 노동」, 『여원』 제7권 제9호, 1961.9.
_____, 「육아일기: 참혹한 아픔의 산고-정화를 낳던 날-」, 『가정생활』 제3권 제1호, 1963.1.
_____, 「육아일기: 바랬던 새로운 사랑」, 『가정생활』 제3권 제2호, 1963.2.
_____, 「육아일기: 싹트기 시작한 예쁜 성격」, 『가정생활』 제3권 제3호, 1963.3.
_____, 「육아일기: 종달새와 같은 그」, 『가정생활』 제3권 제4호, 1963.4.
_____, 「육아일기: 행복하게 사는 소망」, 『가정생활』 제3권 제6호, 1963.6.
_____, 「남자/ 그 영원한 보헤미안」, 『여상』 제2권 제6호, 1963.8.
_____, 「기다림에 지친 일생-가정에서의 불만-」, 『가정생활』 제4권 제1호, 1964.1.
_____, 「유년시절의 추억 한 장-meinem Vater gewidmet-」, 『Fides』 제11권 제2호, 1964.11.
_____, 『미래완료의 시간 속에』, 전혜린 기념출판위원회 편, 광명출판사, 1966.
_____,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전집 1권), 청산문고, 1968.
_____,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전집 2권), 청산문고, 1968.

- 정진욱, 「주부의 의학교실: 임신과 분만과정」, 『가정생활』 제1권 제8호, 1961.8.
한무숙, 「죽음보다 강한 모성의 극치」, 『가정생활』 제3권 제5호, 1963.5.

단행본

- 김윤식, 『한국근대작가론고』, 일지사, 1974, 405쪽.
이덕희, 『전혜린』, 나비꿈, 2012, 17-30쪽.
이재경, 『가족의 이름으로-한국 근대가족과 페미니즘』, 또하나의 문화, 2003,

160-163쪽.

심영희·정진성·윤정로 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 나남출판, 1999, 61, 83쪽.

말린 쉬위, 김창호 역, 『일기 여행』, 산지니, 2019, 15-21, 155-197쪽.

에이드리언 리치, 김인성 역,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평민사, 2018, 9-11, 45-46쪽.

엘리자베트 바덴테르, 심성은 역, 『만들어진 모성』, 동녘, 2009, 6-15쪽.

논문

김륜옥, 「잉에보르크 바흐만과 전해린-1950년 전후 독일 및 한국 여성지식인의 삶과 문학」, 『혜세연구』 제20호, 한국혜세학회, 2008, 301-329쪽.

김양선, 「1950년대 세계여행기와 소설에 나타난 로컬의 심상지리-전후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2호, 한국근대문학회, 2010, 205-230쪽.

서은주, 「경계 밖의 문학인-‘전혜린’이라는 텍스트」, 『여성문학연구』 제1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33-56쪽.

이미숙, 「젠더와 ‘일기문학’이라는 양식-10세기 후반 일본의 『가게로 일기(蜻蛉日記)』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2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43-72쪽.

이송이, 「다중성, 혼종성, 여성성-니콜 브로사르 Nicole Brossard의 『일기 Journal intime ou Voilà donc un manuscrit』에 나타난 여성적 글쓰기」, 『프랑스어권 문화예술연구』 제78호,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21, 142-171쪽.

이행미, 「전혜린의 젠더의식과 실천적 글쓰기」, 『여성문학연구』 제4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118-160쪽.

장순란, 「한국 최초의 여성 독문학자 전해린의 삶과 글쓰기에 대한 조명」, 『독일어문학』 제11권 제2호, 한국독일어문학회, 2003, 149-174쪽.

최경희, 「1960년대 초기 여성지와 소설에 나타난 국가주의 연구-『가정생활』, 『여상』, 『여원』과 손창섭의 『부부』에 나타난 여성의 국민화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57호, 우리문학회, 2018, 385-406쪽.

Abstract

The Issue of ‘motherhood’ in Jeon Hye-rin’s Diary

Lee, Haeng-mi

This article aims to clarify Jeon Hye-rin’s contemplation on motherhood, focusing on her diaries. By examining both her unpublished diaries and the ‘Childcare Diaries’ serialized in *Family Life*, the study seeks to more thoroughly explore Jeon Hye-rin’s thought process, while elucidating the significance of the diary format in public writing.

Jeon Hye-rin’s diaries intricately detail the turmoil of emotions surrounding pregnancy and childbirth. They narrate a rejection of motherhood through feelings of anxiety, fear, and disgust, while simultaneously mentioning happiness, awe, and the importance of maternal love. Her contemplation is reflected through spontaneous and incidental emotions and a series of inconsistent thoughts that arise from her experiences. This narrative style is effectively conveyed through the diary format, which is based on personal experience. The diary, an open and unrestricted form, allows for the portrayal of fickle and inconsistent thoughts, various desires, and unrefined views. The myriad questions and musings that arise from her experiences as a daughter and a mother are more richly revealed through the diary format. Questions left unanswered in her experiences, feelings of powerlessness, frustration, anger, and disgust, are born from a collision with the socially defined conventions of womanhood, including motherhood. In this context, the emotions encountered in the process of discovering her unique way of becoming a mother can be considered.

This approach does not seek to conceptually redefine motherhood but suggests that motherhood should not be standardized and needs to be considered on an individual level. The diary, as an open and flexible format, maintains the meaning of motherhood in an indefinite and fluid state. Such contemplation critiques and subverts the 1960s discourse on motherhood. Jeon Hye-rin’s ‘Childcare Diary’ is significant in her literary world as it reveals her reflections on motherhood while delving into the significance of the literary form of the diary.

Key words: Jeon Hye-rin, diaries, motherhood, pregnancy, childbirth, parenting, care, gender, disgust

논문제출 / 2023. 11. 22.

논문접수 / 2023. 11. 23.

게재확정 / 2023. 12. 05.